SEOUL ISLAMIC CENTER



137/46, ITAEWON 1 –DONG, YONGSAN- GU, SEOUL , KOREA (140-858)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37-46 (140-858)
TEL 00822. 794-0968 FAX 00822.794.0968 MOBILE 010-4440-0967
EMAIL:ISLAMINKOREA@YAHOO.COM

The True message of Jesus Christ ﷺ

예수 그리스도ﷺ의 참 메시지

아부 아미나 빌랄 빌립 박사 / 지음
아미나 곽은미 / 옮김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박사
Dr. Abu Ameenah Bilal Philips

학력 및 전공

1972 이슬람 입교
1979 메디나 이슬람 대학 아랍어 학사
1985 리야드 대학 이슬람학 석사
1994 웨일즈 대학 이슬람학 박사

약력

리야드 사립학교, 이슬람 교육과 아랍어 강의 (10년)
1994 두바이 Islamic Information Center 설립
두바이 The Foreign Literature Department 설립
(현) 두바이 The American University 재직, 아랍어와 이슬람학 강의

저서

Tafseer Soorah al-Hujuraat
Fundamentals of Tawheed
Salvation Through Repentance
Islamic Studies Book Ⅰ & Ⅱ
Hajj & Umrah
Arabic Reading & Writing Made Easy
Islamic Rules on Menstruation and Post-Natal Bleeding
The Best in Islam
Dream Interpretation

The True messa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지

아부 아미나 빌랄 빌립 박사 / 지음

아미나 곽은미 / 옮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Contents

1)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무슬림은 선지자의 이름 뒤 존경의 의미로 붙여 부른다.

서 문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이슬람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분모의 위치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본서는 예수라는 인물과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연구를 전개한다. 본서를 통해 무슬림과 기독교인 모두 예수라는 인물과 그가 전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본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감정이 시야를 가리면 진리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를 이성적으로 대하고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 산재하는 거짓 종교와 비정상적 믿음과 그것에 집착하는 추종자들의 열정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믿음에 눈 먼 헌신 때문에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집요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가르침에 대한 지적 이해에서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막강한 문화적, 감정적 영향 때문이다. 이들은 특정 가정과 사회에서 성장하여 그 사회의 믿음을 굳건히 고수하면서도 스스로는 진리를 신봉하고 있다고 믿는다.

문제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체계적, 논리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증거를 가려낸 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여하신 이성으로 판단한다. 물질세계에서 순전히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것은 전적으로 이성이다. 우리는 객관적 진리를 확신한 후 감정의 헌신을 바쳐야 한다. 그렇다. 감정의 헌신은 문제의 이성적 이해 후에 자리할 수 있다. 감정적 헌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문제를 진실로 이해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진실에 대해 충분히 바르게 이해했다면 지적 · 영적 측면에서 진리를 단호히 지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본서에서 예수의 메시지라는 주제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위해 지적 · 영적 관점에서 논의된다.

빌랄 필립 박사

1989년 사우디 아라비아

제 1 장

성서

예수의 참 메시지라는 주제는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메시지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관한 것이다. 예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한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전한 메시지를 정의하고 이해해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의 메시지를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당시 기록과 유물에 기초하여 현대 역사학자가 수집해 놓은 역사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계시된 성서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혹은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역사적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당대의 공식 역사 문서에는 사실상 예수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성경학자 R. T. 프랜스는 이렇게 기술한다. "1세기의 어느 비문에도 예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으며 예수와 관련된 물건이나 건물도 남아있지 않다."[2] 이러한 사실 때문에 어떤 서구 역사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의 임무를 기록하고 있는 성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의 핵심인 성서는 이슬람과 기독교 두 종교에서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종교 서적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에 앞서 종교 서적의 신뢰도를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종교 서적은 신뢰할 수 있는 문서상의 증거인가 혹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와 신화에 불과한가? 아니면 전자와 후자를 섞어 놓은 것인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신이 계시하신 성서인가? 꾸란은 신뢰할 수 있는가?

---

2) Time, 1995년 12월 18일, p.46

성경과 꾸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없어야 하며 내용과 저자에 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야 비로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꾸란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믿을만한 정보의 원천이라 간주할 수 있다.

성경

기독교의 수많은 종파 출신 다수 학자들은 성경의 상당 부분의 출처를 의심한다.

The 'Myth of God Incarnate'(화신의 신화)서문에 기록된 편집자 서평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서구 기독교는 인류의 지식이 팽창해 나감에 따라 두 가지 중요한 새 조정을 이루었다. 첫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생명체 진화로 인해 지상 위에 출현했다는 이론을 수락한 것이며 **둘째는 성경이 다양한 환경 내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신의 권능의 말씀과 일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3]

국제 시사 잡지 뉴스위크는[4] 'O Lord, Who Wrote Thy Prayer?'(오! 주여, 누가 주기도문을 기록하였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 내 주요 개신교파 출신 신학자들과 저명한 로마 가톨릭 성경학자들로 구성된 신학자 모임에서 신약성경 초기 사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기도문[5]중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말씀으로 추정되는 단어는 "아버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초적 기도인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로 시작되는 문구 뒤의 모든 내용은 수세기가 지나 복음서[6] 초기 사본을 베껴 쓴 교회 서기들에게 의해 추가된 것이다. U. S. 뉴스 & 월드 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학자들은 **예수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복음서의 내용 중 80% 이상이**

---

3) The Myth of God Incarnate, p.9
4) 1988년 10월 31일 p.44
5) 누가복음 11:2, 마태복음 6:9-10
6) 복음서(영어로 Gospel)라는 단어는 앵글로 색슨족어로 선한 이야기를 뜻하는 god-spell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희소식, 선한 말씀을 뜻하는 그리스어 euangelion과 라틴어 evangelium과 같은 의미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5, p.379

이 위경[7] 일 수 있다고 진술했다. 그것은 예수의 최후만찬[8] 의 성찬말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9] 과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등을 포함한다.[10]

리즈 대학 종교학과 J. K. 엘리어트 박사는 1987년 9월 10일 런던 타임즈에 Checking the Bible's Roots(성경 근원의 점검)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5000개 이상의 사본들에 신약 성경의 전부 혹은 일부 내용이 고유의 언어로 쓰여 있다. 시기상으로는 2세기부터 시작하여 인쇄기술이 발명되기까지에 이른다. 모든 구체적 내용에서 일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으로 쓰인 사본은 베껴 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연적 실수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현존 신학 작품 내용이 과거 필경사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문장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던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필경사가 주석[11] 을 첨가하는 행위 역시 하나의 추세였다.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기 전 의도적 변경은 더 쉽게 이루어졌다."

엘리어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금의 변형도 없는 완전한 원문을 수록한 사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사본들 중 어느 하나를 선별하여 마치 최초 저자의 원래 말씀을 독점적으로 담고 있다고 완전히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사의 이어지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수천 개 사본들 중 어딘가에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사본들을 전부 읽어보고 체계적으로 차이점을 수집하고 하나하나 분석하여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후에 쓰인 것인지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이른 시기에 출판된 성경을 믿고 그 안에 수록된 몇 가지 선호하는 사본만을 유일하게 증거로 삼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는 수많은 성서학자들을 실망시킬 정도로 희박하다. 최근 출판된 그리스어 신약성경과 이에 기초한 현대 번역본 역시 완전한 원본과 거리가 먼 자료에 기초한다."

7) 위경: 본문 단어는 apocryphal (의미: 원문이 아닐 수 있음; 허위 혹은 조작일 수 있다.)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p.45)
8) 성체란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에 기원을 둔 기독교적 의식의 빵과 포도주다.
9) 마태복음 26:26 –빅 베스트 성경
10) 1991년 7월 1일, p.57
11) 주석이란 본문에 부가된 설명을 뜻한다.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p.528

영어 개역 성경들

가장 널리 읽혀지는 RSV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서문은 다음과 같다.

"RSV성경은 1901년 출판된 ASV성경(American Standard Version)의 개역 성서이며 ASV성경은 1611년 출판된 KJV성경(King James Version)의 개역 성서다."

"KJV성경(King James Version)은 1560년 출판된 제네바 성경(Geneva Bible)과 인기를 다투다 결국 KJV성경이 널리 보급되어 2세기반 이상 다른 영어 개역 성서는 더 이상 출판되지 않았다. KJV성경은 영어권의 공인 개역 성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함을 보인다.** 19세기 중엽 성경 연구가 심화되고 KJV성경의 기초 사본보다 더 고대의 사본들이 발견됨에 따라 KJV성경의 **많은 결함들이 발견되었으며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영어 개역 성서의 수정이 요구되었다. 1870년 영국 국교회의 승인 하에 작업이 착수되었다. 1881년에서 1885년에 걸쳐 ERV성경(English Revised Version)이 출판되었다. 작업에 참여했던 미국 학자들의 기호를 다양하게 반영한 ASV성경(American Standard Version)은 1901년 출판되었다."[12)]

"KJV신약성경은 14세기 동안 사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누적된 실수로 얼룩진 그리스어 본문에 기초한다. 그것은 본래 1589년 베자에 의해 편집된 그리스어 신약성경이었다. 베자는 1516년에서 1535년 사이 에라스무스가 몇 개의 중세 사본을 기초로 하여 출판했던 본문을 따라 편집했다. 에라스무스가 참고했던 가장 고대의 최상의 사본 8개는 10세기 것이었다. **에라스무스는 그 사본들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약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본문과 고대 사본의 내용이 많은 점에서 서로 상이했기 때문이다.** 베자는 5세기에서 6세기 사이 기록된 가치 있는 사본 2 개를 손에 넣었으나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다. **에라스무스가 출판했던 본문과 여러 점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13)]

---

12) RSV 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p.3
13) RSV 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p.5

"ASV성경(American Standard Version)은 저작권이 있다. 본문의 비공인적 개정을 막기 위함이다. 1928년 국제 종교 교육 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Religious Education)에서 저작권을 부여했으며 저작권의 소유는 협회의 교육 출판 위원회를 통해 협회 조합원인 미국과 캐나다 교회들이 갖게 되었다. 협회는 ASV성경 본문을 맡아 추가 개역의 필요 여부를 자문할 학자 위원회를 지정했다... [2년 후] 틴들-킹 제임스(Tyndale-King James) 전통에 가깝게 남아있는 1901년 출판된 개역 성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1937년 위원회의 투표로 개역이 승인되었다."[14]

"32명의 학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성경 개정 임무를 맡았으며 제휴 종파들로부터 파견된 50명의 대표 자문 위원회가 검증을 맡았다... 1946년 RSV(Revised Standard Version) 신약성경이 출판되었다."[15]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한 권에 담은 RSV성경은 1952년 9월 30일 출판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16]

성경학자들은 KJV(Revised Standard Version)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수많은 핵심 구절들이 추후에 RSV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본문에 삽입되고 삭제되거나 주석으로 대체되었다고 결론짓는다. 예를 들면 투석 형벌을 앞둔 간음녀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8:7을 보자. 예수▩의 말씀이라고 주장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17] 1952년 출판된 RSV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다. "최초 고대 당국은 7:53-8:11구절을 삭제했다."[18] 학자들은 그 12구절이 바티칸 사본 1209번과 4세기경의 시나이 사본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다른 예시를 보자. 삼위일체설의 증거로 주장되는 요한일서 5:7-5:8은 다음과 같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19] 저명한 성서학자 벤자민 윌슨은 "증거

14) RSV 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p.3-4
15) RSV 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p.4
16) RSV 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p.6
17) 빅 베스트 성경
18) RSV 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p.96
19) 빅 베스트 성경

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는 구절이 15세기 이전 그리스어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한다. **결국 RSV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은 본문과 주석에서 이 구절을 삭제했다.** 그러나 RSV 개역 성서 역자는 전체 구절수를 KJV성경(King James Version)의 전체 구절수와 같도록 맞추기 위해 6번째 구절을 둘로 나누었다.

1946년 RSV 신약성경이 처음 출판된 이래 성서 본문과 언어 연구가 진행되면서 1971년 신약성경 2차 개역 성서가 출판되었다.[20] 결과적으로 이전 개역 성경에 삭제되었던 구절 중 일부는 2차 개역 성서에 복구되었으며 이전에 수록되었던 구절 중 일부는 2차 개역 성서에서 삭제되었다. "마가복음 16:9-16:20의 마지막 긴 두 단락과 간음으로 잡혀 온 여성에 관한 내용인 요한복음 7:53-8:11이 2차 개정 성경에 다시 삽입되었고 주석에 부가 설명이 추가되었다. 새 사본이 옹호되자 누가 복음 22:19-22:20과 24:51이 본문에 복귀되고 누가복음 22:43-22:44는 누가 복음 12:39와 함께 주석으로 변경되었다."[21]

원작자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복음서와 구약성경의 원작자는 불분명하다.

토라

전통적으로 모세오경[22]의 말씀은 선지자 모세[illegible]라고 추정된다.[23] 그러나 모세오경 전체를 선지자 모세[illegible]가 전부 다 기록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여러 구절이 있다. 신명기 34:5-8을 보자. "5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 벧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20) RSV 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p.6
21) 빅 베스트 성경
22)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3) 유대교 정통파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며 세상이 창조되기 974세대 전 토라가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모세가 시나이 산에 40일간 기거할 때 하나님이 토라를 기록하였다.
그것은 최후의 변경 불가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만일 모세가 한 글자라도 임으로 적었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7 모세의 죽을 때 나이 일백 이십 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소하지 아니하였더라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24] 위 구절들은 분명 선지자 모세의 죽음 뒤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다.

일부 기독교 학자들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으나 후대 선지자들과 영감 받은 율법학자들이 이전 계시에 추가 구절을 덧붙였다고 주장하며 이 모순을 설명하려 한다.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계시서로 보존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은 허점을 드러낸다. 새로 삽입된 구절의 문체와 문어적 특색이 본문의 나머지 부분의 문체와 문어적 특색과 바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19세기 기독교 성경학자들은 토라에 기록된 이중일화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이중일화란 한 가지 일화가 두 차례 언급되나 그 세부 내용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그 중에는 세상 창조에 관한 각기 다른 두 가지 일화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성약에 관한 두 가지 일화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두 가지 일화와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얻는 두 가지 일화가 포함된다.[25]

토라의 저자가 모세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중일화가 모순이 아닌 교훈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이중일화가 기록된 의도는 토라의 더 심오하고 미묘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곧 편견 없는 학자들이 그들 주장을 일축시켰다. 편견 없는 학자들은 이중 일화의 세부 내용이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각 일화가 신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다르게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본에서는 신의 이름을 항상 야훼 혹은 여호와라 부른다. 이 사본은 J라고 불린다. 또 다른 사본에 서는 신의 이름이 항상 엘로힘이라 불리며 이 사본은 E라고 한다.[26] 서로 다른 사본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학적 특징도 있다. 리처드 프리드먼 교수[27]는 현대 언어학 분석에 따르면 모세 오경은 기원전 6세기에서 9세기 사이의 히브리어가

24) 빅 베스트 성경
25) Who Wrote the Bible, p.54-70
26) 19세기 후반 독일 학자 줄리어스 웰하우센은 모세오경의 여러 출처를 최초로 구별해냈다.
27) 리처드 엘리엇 프리드먼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다. 하버드 대학에서 히브리 성경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화제작 'Who Wrote Bible'(누가 성경을 기록했는가)의 저자다.

한데 섞어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원전 13세기 인물인 모세[illegible]가 사용했던 히브리어와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사이의 차이점은 매우 큰 것으로 셰익스피어 영어와 현대 영어 사이의 차이점을 훨씬 능가한다.

모세오경에 대한 연구결과 그 출처는 2가지가 아니라 4가지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일부 일화는 이중일화가 아닌 삼중일화로 기록되었으며 추가된 문체적 특징은 문서에서 구별되었다. 모세오경의 3번째 출처를 성직자(Priestly)의 P라 부르며 4번째 출처를 신명기(Deuteronomy)의 D라 부른다.[28)]

원문에 추가된 부분이 미미한 경우에는 구별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 저자의 실체에 대해 커다란 회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RSV성경(Revised Standar Version) 부록인 성경전서(Books of the Bible)에는 나머지 구약전서 3분의 1이상의 저자에 관한 다음 기록이 있다.

구약전서	저자
사사기	사무엘일 가능성 있음
룻기	사무엘일 가능성 있음
사무엘상	미상
사무엘하	미상
열왕기상	미상
열왕기하	미상
역대상	미상
에스더	미상
욥기	미상
전도서	불분명
요나	미상
말라기	알려진바 전혀 없음

28)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1, p.756, vol.3, p.617.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773-774 참고

위경

전 세계 기독교인 수의 절반 이상이 로마 가톨릭 신자다. 로마 가톨릭 성경은 제롬의 라틴어역 불가타 성경(1582년 출판)을 기초로 하여 출판되었으며 1609년 두에이에서 재출판되었다. RCV(Roman Catholic Version)성경은 개신교 세계가 인정하는 KJV(King James Version)성경보다 총 7권이 더 많다. 1611년 개신교 성경학자들은 그 7권을 위경, 즉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외서라 칭하고 성경에서 삭제했다.

복음서

아람어는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의 구어였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 역시 아람어로 말했고 배웠다고 전해진다.[29] 예수의 행적과 말씀에 관한 초기 구전은 의심의 여지없이 아람어로 전해졌다. 그러나 네 권의 복음서는 아람어와 전혀 다른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그리스어는 문명화된 지중해 세계의 구어로 대다수 교회에서 사용되었으며 교회는 팔레스타인 대신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복음서에 아람어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41을 보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30] 마가복음 15:34의 구절이다. "제구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31]

교회학자들이 가장 고대의 복음서로 인정하는 마가복음은 예수의 제자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다. 성경학자들은 복음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마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마가가 실제 누구였

29) 아람어는 셈족의 언어로 아카드어 자리를 점차 대신하여 기원전 6-7세기 근동지역 공통어로 사용되었으며 후에 페르시아 제국 공식어로 지정되었다. 아람어는 유대인의 언어로써 히브리어를 대신하여 구약전서 다니엘과 에스라의 일부로 기록되었다. 바벨로니아와 예루살렘 탈무드 역시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서기 650년에서 기원전 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기에 가장 널리 사용 되었으나 그 후 아랍어가 아람어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 p.516
30) 빅 베스트 성경
31) Encyclopedia Americana, vol.3, p.654

는지 확인된 바 없다. 고대 기독교인 저자 유세비우스(서기 325년)는 고대 저자 파피아스(서기 130년)가 바울의 교우였던 요한 마가를 복음서의 저자로 지목한 최초 인물이었다고 지적했다.[32] 마가가 베드로의 서기였거나 또 다른 누군가였다는 설도 있다.

다른 복음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예수의 제자들 이름이다. 그러나 이 이름을 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의 제자들과 동일인이 아니며 단지 기록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붙였다. 사실 모든 복음서는 원래 저자 미상으로 전해졌다. 복음서의 권위 있는 이름은 초기 교회의 누군가가 붙인 것이다.[33]

신약전서	저자
마태복음	미상[34]
마가복음	미상[35]
누가복음	미상[36]
요한복음	미상[37]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작가[38]
요한1서,요한2서,요한3서	요한복음의 작가[39]

영국 국교회 치체스터 대성당 J. B. 필립 목사[40]는 마태복음 번역 서문에 이렇게 기술한다. "초기에 이 복음서는 사도 마태의 작품으로 여겨졌으나

32) The Five Gospels, p.20,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824. 사도행전 12:12, 12:25, 13:5, 15:36-41, 골로새서 4:10, 디모데후서 4:11, 빌레몬서 24, 베드로전서 5:13 참고
33) The Five Gospels, p.20
34) "예수의 여러 제자 중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으나 마태복음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826
35) "마가복음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824
36) "무라토리안 교회는 누가를 바울의 교우인 내과의사로써 언급하고 있으며 아리나우스는 그를 바울복음서의 추종자로 묘사한다. 유세비우스는 누가가 내과의사로 복음서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바울과 동행했다고 말한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827
37) "내용상 증거를 고려할 때 요한복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총애 받았던 한 제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828
38)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830
39)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844
40) 성당의 수입에서 임금을 받는 성직자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p.973

거의 모든 현대 학자들은 이에 반대한다. 편의상 마태라고 불리는 저자는 구전의 수집본 일지 모르는 불가사리한 Q[41] 위에 평이한 그림을 그려 놓았다. 그는 마가복음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사건을 재배열하고 같은 일화에 평이하게 사용된 단어 대신 다른 어휘를 집어넣었다."[42] 초기 교회는 네 번째 복음서(요한복음)를 이단으로 간주했다. 요한복음은 세배대의 아들 요한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43] 여러 학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한 유파에 의해 1세기 후반 시리아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44]

모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본문 상의 수많은 모순 구절은 성경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증거다.

단순한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41)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200여개의 동일 구절이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7-10과 누가복음 3:7-9, 마태복음 18:10-14와 누가복음 15:3-7) 그러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동일 구절이 없다. 어떤 독일 학자는 이 동일 구절을 설명하면서 한때 원천이 되는 문서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 문서를 Quelle(독일어로 원천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이때부터 Quelle의 약자 Q가 사용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한 때 Q의 존재 여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들은 특히 예수의 심판과 죽음에 관한 일화와 예수에 관한 부족한 일화와 말씀을 담고 있는 복음서와 유사한 고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마복음서 (Gospel of Thomas)의 발견은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다. -The Five Gospels, p.12.

도마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114개의 말씀과 일화를 담고 있다. 그것은 설화식 구성이 아니며 귀신 쫓기, 병 치료, 심판, 죽음, 부활, 탄생, 유년기 일화 등에 관한 설명이 없다. 갈릴리와 유대에서의 성직자직에 대한 일화도 없다.
이 문서의 콥트어 번역본이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되었다. 이 번역본으로 학자들은 이전에 발견된 그리스어 미완성 유고(서력기원 200년경으로 추정됨)가 같은 복음서를 베낀 3개의 사본 조각이었음을 밝혀냈다.
도마복음에 마가복음과 유사구절은 47개, 문서 Q와는 40개, 마태복음과는 7개, 누가 복음과는 4개, 요한복음과 유사구절은 5개다. 도마복음만의 유일한 구절은 65개 또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 -The Five Gospels, p.15

42) The Gospels in Modern English

43) 18세기 후반 이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로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5, p.379

44) The Five Gospels, p.20

1 사무엘과 역대기 저자들은 유대인 인구를 조사한 선지자 다윗▒에 관한 일화를 기록한다. 사무엘하에 선지자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따랐다고 기록되나 역대상에는 **사탄의 명**을 따랐다고 기록된다.

사무엘하 24:1 인구 조사	역대상 21:1 인구 조사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하신지라[45]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도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46]

2 갓이 예언한 역병의 기한에 관해 사무엘하의 저자는 칠년을, 역대상의 저자는 삼년을 언급한다.[47]

사무엘하 24:13 기근	역대상 21:11-12 기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48]	11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 혹 삼 년 기근일찌, 혹 네가 석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 일찌,[49]

3 여호야긴이 군림하기 시작한 나이에 대해 역대하는 **팔세**로, 열왕기하는 **십팔세**로 묘사한다.

---

45) 빅 베스트 성경
46) 빅 베스트 성경
47)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역대상 21:91-
이 구절에 의하면 갓은 선지자 다윗 의 개인 예언자 이름이다.
48) 빅 베스트 성경
49) 빅 베스트 성경

역대하 36:9	열왕기하 24:8
나이	나이
여효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50]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을 치리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51]

4 사무엘하의 저자는 선지자 다윗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시리아인의 수를 **칠백명**으로, 역대상의 저자는 **칠천 명**으로 기록한다.

사무엘하 10:18	역대상 19:18
사망자	사망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 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백 승의 사람과 마병 사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52]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 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천 승의 군사와 보병 사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53]

숫자 1 혹은 0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것은 단지 사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숫자가 아닌 단어로 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이런 모순들이 신이 계시하신 성서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 저자의 실수로 구약성경의 원문이 보존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역시 비슷한 수많은 모순 구절을 보인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

50) 빅 베스트 성경
51) 빅 베스트 성경
52) 빅 베스트 성경
53) 빅 베스트 성경

1 예수[illegible]가 못 박힐 십자가를 운반했던 사람에 대해 복음서의 기록은 다양하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구레네의 시몬을, 요한복음은 예수[illegible]를 지목한다.

누가복음 23:26 [54] 십자가	요한복음 19:16-17 십자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55]	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히게 저희에게 넘겨 주니라 17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헤브라이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56]

2 '십자가형' 후 예수의 무덤을 방문했던 사람과 방문 시각과 무덤상태에 대해 복음서는 각각 다른 기록을 남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무덤 방문 시각을 일출 전이라 기록하며 마가복음은 일출 후라 기록한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성들이 치워져 있는 무덤의 돌문을 보았다고 기록하나 마태복음은 천사가 그들 앞에 내려와 돌을 치우기 전까지 무덤이 닫혀있었다고 기록한다.

---

54) 마태복음 27:32와 마가복음 15:21참고 :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태복음 27:32,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 15:21

55) 빅 베스트 성경

56) 빅 베스트 성경

마가복음 16:1-2 방문	요한복음 20:1[58)] 방문	요한복음 20:1 방문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가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57)]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 간 것을 보고[59)]	1.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60)]

3 신약성경은 이스가리옷 유다의 운명과 예수를 배신한 대가로 받은 금전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제시한다. 마태복음에서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었다고 기록되며 사도행전에는 들판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기록된다.

마태복음 27:3-5 유다의 운명	사도행전 1:18 유다의 운명
3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 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지라[61)]	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지라 [62)]

57) 빅 베스트 성경
58) 누가복음 24:1-2참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간 것을 보고"
59) 빅 베스트 성경
60) 빅 베스트 성경
61) 빅 베스트 성경
62) 빅 베스트 성경

4 다윗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이르는 족보가 마태복음 1:6-16과 누가복음 3:23-31에 서로 다르게 기록된다. 주요 모순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로 예수는 다윗에 이르기까지 26명의 선조를 갖는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그 수는 41명이다. 둘째, 목록상의 이름이 다윗 이후의 자손들에서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며 공통인물은 요셉과 스룹바벨로 단 2명이다. **이상하게도 두 족보 모두 예수의 아버지로서 요셉을 지목하고 요셉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할아버지를 **야곱**이라고 기록하며 누가복음은 **헬리**라고 언급한다. 두 족보 중 하나가 사실상 마리아의 족보라 주장한다 해도 두 족보의 공통 조상인 다윗 이전의 선조들에 나타난 차이점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두 족보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으며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인물들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마태복음 족보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라고 기록하나 누가복음에서 헤스론의 아들은 **아니**이며 아니의 아들은 **아미나답**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모순은 신의 계시서란 신뢰도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분명한 실책이다. 결국 다수의 현대 기독교 학자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인간의 작품이라고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주장마저 의심스럽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모순과 실수로 얼룩진 성서를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단 말인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출처는 다분히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자체로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메시지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꾸란

성경과 달리 꾸란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선지자 무함마드ﷺ 시절 기록되고 암기되었다. 무슬림은 꾸란이 선지자 무함마드ﷺ[63]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63)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깃드시기를'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무슬림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 뒤에 존경과 사랑의 의미로 붙여 부른다.

선지자 무함마드(ﷺ)의 임종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최초 표준 원문이 만들어졌다.[64] 그의 임종 14년 후 표준 원문을 베낀 여러 공인 사본[65]이 만들어져 무슬림 제국의 여러 수도로 보내졌으며 비공인 사본은 폐기되었다.[66]

서기 632년 선지자의 임종 후 계승되는 세대에서 꾸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만 명의 무슬림들은 꾸란 전체를 매년 라마단 달을 비롯한 여러 경우에 암송한다.

유명한 동양학자 케네스 크랙은 꾸란 원문 암기와 보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다. "꾸란 암송 현상은 원문이 끊임없는 생생한 헌신의 연속 속에 수세기를 거쳐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꾸란 원문을 골동품이나 과거유물의 역사적 문서로써 취급해서는 안 된다."[67] 동양학자 윌리엄 그라함은 이렇게 기술한다. "1400년 이상의 이슬람 역사를 통해 수백만 명의 무슬림은 알-키탑(성서)을 배우고 읽고 반복하여 소리 내 암송하고 암기하여 전한다. 문자로 기록된 꾸란은 신의 말씀을 보여주는 권위 있는 원문으로써 고착되어 있으나 꾸란의 권능은 올바르게 암송될 때 충만하고 완벽하게 드러난다."[68] 동양학자 존 버튼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꾸란 전승 방법으로 젊은이가 연장자의 구전을 암기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문자 기록에만 의존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을 애초부터 경감시킨다."[69] 꾸란 수집본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마무리하며 버튼은 이렇게 기록한다. "현재 구할 수 있는 꾸란 본문은 선지자가 승인하고 배열한 형식을 따른다. 오늘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무함마드(ﷺ)의 무샤프[70]다."[71]

성서 비평

성경학자들이 성경 사본의 결점과 왜곡을 밝혀내는데 사용한 같은 분석

63)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깃드시기를'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무슬림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 뒤에 존경과 사랑의 의미로 붙여 부른다.
64) Shorter Encyclopaedia of Islam, p.278
65) 원문을 손으로 베껴 쓴 사본
66) Shorter Encyclopaedia of Islam, p.279.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22, p.8참조
67) The Mind of the Qur'an, p.26
68) Beyond The Written Word, p.80
69) An Introduction to the Hadith, p.27
70) 꾸란의 원문을 뜻하는 아랍어
71) The Collection of the Qur'an, p.239-240

원칙이 전 세계에서 수집된 꾸란 사본에도 적용되었다. 워싱턴 의회 도서관에 보관된 고대 사본에서 시작하여 아일랜드 더블린시 체스터 베티 박물관과 런던 박물관과 타쉬켄트, 터키, 이집트에서 수집한 사본까지 이슬람 역사 전반에 걸친 모든 사본이 비교되었다. 결과는 모든 사본이 원본으로부터 일획의 변화도 거치지 않았음이 확증되었다. 독일 뮌헨 대학 푸르코란포르슝 연구소는 42000권에 이르는 꾸란 완성 사본과 미완성 사본을 수집했다. 다양한 사본들의 차이점을 밝혀내기 위한 50여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필경사의 작은 실수를 제외한 어떤 변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72)]

꾸란의 모순

꾸란은 아랍어 원어로 존재한다. 꾸란 니싸아장 82절은 꾸란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꾸란 내 모순을 찾아보라 명한다.

왜 그들은 꾸란을 숙고하지 않느뇨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으리라[73)]

꾸란 4:82

꾸란을 성경의 위치로 전락시키려 시도하는 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분명한 모순"은 간단히 설명된다. "제일 먼저 믿는 자"에 관한 다음 두 구절을 예로 들어 보자.

72) Muhammad Rasullullah, p.179
73)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꾸란 6:14	꾸란 7:134
일러 가로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보호자로 택하겠나이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그분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치 아니하신 분이시라 일러 가로되 **내게 명령하셨으니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복종하되** 불신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 말라 하였노라[74]	..그 때 주님께서 그 산에 영광을 보이시어 그것을 먼지처럼 만드니 모세가 기절하여 넘어지더라 그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말하길 당신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저는 당신께 회개하며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되겠나이다**[75]

첫째 구절은 선지자 무함마드ﷺ에 관련된 구절로 그는 당대에 최초로 우상을 금하고 알라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라고 명받는다. 둘째 구절은 알라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깨달은 선지자 모세ﷺ가 당대의 사람들 중 제일 먼저 알라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다. 각 선지자는 모두 자기 시대에 가장 먼저 알라께 순종하였다.

하루에 관한 다음 두 구절을 보자.

꾸란 32:5	꾸란 70:4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 까지 만사를 주관하시며 **하루 동안에 모든것이 그분에게 귀의하니 그 기간은 너희가 헤아리는 천년과 같으리라**[76]	**오만년과도 같은 하루 동안에**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77]

두 구절은 완전히 다른 두 사건을 언급한다. 첫째 구절은 하루 동안 만사가 주관되는데 그 기간이 인간의 천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78] 둘째 구절은

72) Muhammad Rasullullah, p.179
73)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74)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75)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76)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77)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78) Tafseer al-Qurtubee, vol.8, p.5169-5170

천사들이 지상에서 천국의 가장 높은 곳까지 하루 만에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인간의 오만 년과 같다는 뜻이다.[79] 알라는 시간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분이시다. 그 분은 시간을 창조하셨으며 피조물마다 시간의 상대적 지배를 받도록 정해 두셨다. 현대 과학의 계산에 따르면 화성의 1년은 지구의 687일과 같은 기간이며 천왕성의 1년은 지구의 84년에 해당한다.[80]

꾸란 본문은 사상과 표현 방식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태도를 견지한다. 가장 뛰어난 동양학자 출신 꾸란 번역가 아더 존 아르베리는 꾸란 번역 서문에 이렇게 기술한다. "꾸란 전반에 걸쳐 비슷한 주제들은 한데 모아져 있다. 각 수라[81] 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종종 여러 개)의 주제로 윤곽을 드러낸다. 각 수라는 음악의 언어를 이용하여 전체적 또는 단편적 반복을 특징으로 만들어진 한편의 서사시다. 유사구절은 미묘하게 변화하는 리듬 화법의 흐름으로 강화된다."[82]

꾸란 본문 내 언급된 과학적 사실은 일관되고 뚜렷한 정확성을 보인다. 1976년 프랑스 의술원에서 열린 "꾸란에 나타난 생리학과 발생학 자료"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모리스 부카일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꾸란처럼 당대 지식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료를 담고 있는 인간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꾸란의 지식에 필적하는 과학적 견해는 현대 지식의 산물이다."[83]

레이놀드 A. 니콜슨 교수는 꾸란의 권능에 관해 이렇게 연설했다. "[꾸란에는] 이슬람의 근원과 초기 발전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권능을 갖는 자료가 있으며 그러한 자료는 불교와 기독교와 기타 어느 종교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84]

따라서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메시지를 밝힐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오직 꾸란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꾸란을 기준으로 성경 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꾸란을 통해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신앙의 일부로써 선지자 모세 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선지자 다윗에게 계시된 시편 원문과 예수에게 계시된 복음서 원문 역시 마찬

79) Fat-hul-Qadeer, vol.4, p.349
80)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27, p.551&571
81) 꾸란의 장
82) The Koran Interpreted, p.28
83) The Qur'an and Modern Science, p.6
84) Literary History of the Arabs, p.143

가지다. 무슬림이라면 계시된 모든 성서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꾸란에 따르면 꾸란 이전에 계시된 모든 성서들은 계시된 원문으로 남아있지 않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성서를 왜곡시켰다.

> **그들의 손으로 그 성서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값싸게 사소서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쓴 그들의 손에도 재앙이 올 것이요 그것으로 금전을 모으는 자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85] 꾸란 2:79

구약성경 예레미야 8:8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86]

85)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8
86) 빅 베스트 성경

제 2 장

예수라는 인물

앞서 증명되었듯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의 임무와 메시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꾸란에 비추어 성경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조금이나마 성경 안에도 예수에 관한 진실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사도

꾸란 전반에 걸쳐 예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의된다. 꾸란 사프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선지자라 나 앞에 온 구약과 나 이후에 올 아흐맏이란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87] 꾸란 61:6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 역시 예수의 선지자직(사도직)을 확증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태복음 21:11에 예수 당대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불렀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88] 마가복음 6:4에 예수는 스스로를 선지자로 불렀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89] 사도가 오신 방식으로 예수가 오셨다고 언급된다. 마태복음 10:40에 예수의 말씀은 다음

---

87)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88) 빅 베스트 성경
89) 빅 베스트 성경

과 같이 전한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90] 요한복음 17:3에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인용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91]

인간

꾸란은 예수의 선지자직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을 분명히 부정한다. 꾸란 마이다장 7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음식을 먹었다고 지적하신다.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의 속성으로 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행위다.

> **예수는 마리아 아들로써 선지자이니라 그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라 그의 어머니는 진실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음식을 섭취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그 징표를 설명하노라 그런데도 그들은 배반하는 자들이라**[92]
>
> **꾸란 5:75**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 역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다. 마태복음 19:17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93] 진실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자신은 신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4:28에 예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94] 이 구절의 예수는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다. 요한복음 20:17을 보자. 예수는 마리아 막달라로 하여금 추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95] 예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로 부르며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한다. 또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축시켰다.

---

90) 빅 베스트 성경
91) 빅 베스트 성경. 요한복음 4:34, 5:30, 7:16, 7:28, 11:42, 13:16, 14:24 참고
92)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93) 빅 베스트 성경
94) 빅 베스트 성경
95) 빅 베스트 성경

교회에서 신성시하는 바울서신의 일부에 예수는 하나님과 분명히 구분되는 한 명의 인간으로 언급된다. 디모데전서 2:5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96]

선지자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를 신이나 혹은 반신인의 위치로 승격시켜 숭배한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이 예수 추종자들의 전철을 밟는 것을 막기 위해 꾸란의 여러 구절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인성을 확증한다. 꾸란 카흐프장 110절에 알라는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라고 명하신다.

> **일러 가로되 실로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한 인간이라 단지 신은 단 분 뿐이라는 계시가 내게 내려졌노라**[97] 꾸란 18:110

아흐라프장 187절에 알라는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심판의 날은 오직 알라만이 알고 계신다는 점을 알리도록 명하셨다.

> **그들이 그대에게 최후의 그때가 언제 일어날 것이요 라고 물을지니 일러 가로되 그것은 나의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그것이 언제 있을지 그분 외에는 말할 수 없으며**[98] 꾸란 7:187

마가복음 13:31-32에 예수는 현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99]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다. 따라서 심판의 날에 대한 지식을 부인하는 것은 곧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신이라고 할 수 없다.[100]

완벽한 관념

동정녀로부터 예수탄생은 꾸란에 확증된다. 예수탄생과 관련된 꾸란 구절에 따르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그녀의 삶은 어머니에

97)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98)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99) 빅 베스트 성경
100) 꾸란의 경고와 선지자 무함마드 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슬림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기도하거나 그를 중개자로 삼는 기도를 행함으로써 반신인의 위치로 그를 숭상한다.

의해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헌신되었다. 마리아가 종교적 은둔지에서 숭배 드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임신이 임박했음을 알려 주었다.

> 천사들이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써 그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훌륭한 분이시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가운데 한 분이라
>
> 꾸란 3:45

> 그녀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남자도 저를 스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리라 그분이 원하시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있어라 그러면 그것이 있게 되니라 [101] 꾸란 3:47

동정녀로부터 출생이 예수의 인성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꾸란에 강조된다. 예수가 창조된 것은 부모 없이 아담이 창조된 방식과 같은 것이다.

>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것에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가 있었노라 [102]
>
> 꾸란 3:59

기적

꾸란은 예수가 행한 여러 기적 중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103]을 확증하며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을 언급한다. 예를 들면 예수는 출생부터 하나님의 사도였으며 요람에 있는 아기 상태로 말을 시작한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고 꾸란에 기록된다.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자 사람들은 그녀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에 대답하는 대신 마리아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가리켰다.

---

101)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02)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03)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일화 중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요한복음 2:1-10)는 꾸란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자 그녀는 아기를 가르키더라 이때 모두가 요람 안에 있는 아기와 어떻게 말을 하란 말이뇨 라고 말하더라 아기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택하셨습니다[104)]

꾸란 19:29-30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나병환자를 고치고 장님을 눈뜨게 한 기적 외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적이 꾸란에 기록된다. 선지자 예수가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새가 되어 날아갔다. 그러나 꾸란을 통해 예수의 기적이 언급될 때마다 매번 강조되는 핵심이 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이다. 이전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추종자들에게 스스로 기적을 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렸다.

불행히도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룬 기적을 신성에 대한 증거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따르면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와 같거나 비슷한 기적을 이루었다.

예수는 다섯 덩이 빵과 두 마리 물고기로 5000명의 사람을 먹였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의 사람을 먹였다.(열왕기하 4:44)
예수는 나병환자를 치료했다.	엘리사는 나병환자를 치료했다. (열왕기하 5:14)
예수는 장님을 눈뜨게 했다.	엘리사는 장님을 눈뜨게 했다. (열왕기하 6:17&20)
예수는 죽은 자를 살려냈다.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려냈다. (열왕기상 17:22)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려냈다. (열왕기하 4:34) 엘리사 시신의 뼈에 시체가 닿자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났다. (열왕기하 13:21)
예수는 물 위를 걸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사해를 가로 질러건넜다. (출애굽기 14:22)

104)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신약성경 또한 예수ﷺ스스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요한복음 5:30에 예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105]"누가복음 11:20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106]사도행전 2:22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107]

예수ﷺ의 신성에 대한 '증거'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ﷺ의 신성에 대한 증거로 해석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문장 표현이 애매모호하여 여러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나 후기에 첨가된 구절로써 초기 성경 사본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다음 예시는 가장 자주 인용되는 논점의 일부다.

1.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1:8에 예수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은 속성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로 예수가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KJV성경(King James Version) 구절이다. 성경학자들은 RSV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기록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가톨릭교에서 출판한 NAB성경(New American Version)에도

---

105) 빅 베스트 성경
106) 빅 베스트 성경
107) 빅 베스트 성경

수정이 가해졌다. 같은 번역이 다음과 같이 문맥상 바른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수정을 거치면서 그 구절은 선지자 예수 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경 되었다.

2. 탄생 이전에 존재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구절은 요한복음 8:58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109]이 구절은 예수가 세상에 모습을 보이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탄생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의미의 이 구절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와 인간이 탄생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개념은 구약성경과 꾸란에 흔히 나타나는 개념이다. 예레미야 1:4-5는 다음과 같다. "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110]구약성경 잠언 8:23-27에 선지자 솔로몬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23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111]

욥기 38:4와 38:21에 하나님은 선지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21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 때에 났었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112]

---

108) 빅 베스트 성경
109) 빅 베스트 성경
110) 빅 베스트 성경
111) 빅 베스트 성경
112) 빅 베스트 성경

꾸란 아으라프장 172절에 하나님은 물질세계가 창조되기 전 인간이 영혼의 형태로 존재했다고 말씀하신다.

>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언케 하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더뇨 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더라 이는 너희가 심판의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 하도록 함이라** [113] 꾸란 7:172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는 예수 신성에 대한 증거 구절로써 인정될 수 없다. 요한복음 8:54-58에 예수는 천지창조 이전 존재했던 선지자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했다고 전해진다.

3.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성을 주장하는데 이용되는 또 다른 증거는 예수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으로 불린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며 이스라엘(선지자 야곱)을 그 분의 '아들'이라 부르셨다. 출애굽기 4:22-23을 보자. "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114]

사무엘하 7:13-14에 하나님은 선지자 솔로몬을 그 분의 아들이라 부르신다. "13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4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115]

욥기 1:6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116]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 역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언급

113) 꾸란 의미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14) 빅 베스트 성경. KJV 성경의 호세아 1:10 참조
115) 꾸란 의미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16) 빅 베스트 성경. KJV 성경의 호세아 1:10 참조

한다. 예를 들어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선조들을 열거한 누가복음의 다음 구절 보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117]

혹자는 예수의 경우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the only begotten[118]son) 즉 낳아진 유일한 아들이며 다른 이들은 그저 단순히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시편 2:7에 하나님은 선지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119]

주목할 점은 복음서의 어디에도 예수가 실제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120] 대신 예수는 수차례 자신을 '인간의 아들'로 호칭했다.(예: 누가복음 9:22) 누가복음 4:41에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부인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121]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배우자와 자손을 갖지 않으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지 '**하나님의 종**'을 의미했다. 그의 충직한 헌신으로 인해 마치 아버지에게 아들처럼 하나님 가까이서 사랑받는 존재를 뜻했다. 후에 그리스와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 용어를 오용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의 화신 또는 남신과 여신의 육체적 결합으로 인해 탄생한 존재를 의미했다. 교회는 유대인의 기본 믿음 대신 '하나님의 아들'

---

117) 누가복음 3:38 -빅 베스트 성경
118) begotten은 고대 영어로 '아버지에게서 낳아지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되는 예수와 단지 비유적으로 표현된 '창조된 아들들' 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19) 빅 베스트 성경
120) 사도행전에 예수 초기 제자들의 설교 몇 가지가 기록된다. 그것은 4복음서가 기록되기 40년 전인 서기 33년경으로 추정된다. 사도행전 2:22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로 호칭한다. (사도행전 3:13, 3:22, 3:23, 3:26)
로마 종교와 그리스 철학의 영향 아래 믿음과 용어 사용이 변질되기 전 제자들의 본래 믿음과 용어를 정확히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설교는 중요성을 갖는다. 4복음서보다 더 오랜 전통을 보여주며 여기서 예수는 신 또는 신의 아들과 연관되지 않는다.
– Bible Studies From a Muslim Perspective, p.12
121) 빅 베스트 성경

에 대한 이교도적 개념을 채택했다.[122] 그것은 히브리어 어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123]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사용은 이교도의 문자적 의미인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셈족의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복음서에 기록되는 예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124]

마찬가지로 예수 가 사용했던 표현 '압바' 즉 '아버지여'라는 의미 역시 같은 맥락 하에 이해되어야 한다. 신약성경 학자들 은 예수 시대에 사용된 '압바'의 정확한 의미와 당시 다른 유대 종파의 '압바'라는 용어 사용 빈도에 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제임스 바르는 '압바'에 지금까지 부여된 특별히 심오한 의미는 없으며 그저 '아버지'만을 뜻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125]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 역시 전혀 새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쳤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4. 하나님과 하나인 자

예수 가 독립적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의 화신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요한복음 10:30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예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126]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예수의 신성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는 바로 그 구절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비난당하고 있다.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

---

122) 사도행전 14:11-13을 보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선교하러 갔을 때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화신이라 주장했다. 그들은 바나바를 로마의 신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렀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 밖 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빅 베스트 성경
123) Bible Studies from a Muslim Perspective p.15
124) 마태복음 5:9
125)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vol.39, Theology vol. 91, #741
126) 빅 베스트 성경

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127]**하지 아니하였노라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128]예수[illegible]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제시했다. 그는 선지자의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것을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요한복음 14:10-11 또한 예수 신성에 대한 증거로써 주장된다. 이 구절은 아버지를 보여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의 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129]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배제한 체 이 구절 자체만 떼어 놓고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9구절 뒤 요한복음 14:20에 예수[illegible]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13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라는 구절로써 예수를 하나님으로 간주한다면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까지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본질의 단일함이 아닌 목적의 단일함을 의미한다. 비슷한 상징적 해석은 요한복음 17:20-21에 적용된다. 예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

127) 예수는 시편 82:6을 언급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128) 빅 베스트 성경
129) 빅 베스트 성경
130) 빅 베스트 성경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131]

5. 그가 숭배 받았다

예수는 추종자들의 숭배를 받았다고 전해지며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본문을 잘 검토해보면 그것은 모호한 번역과 오역 때문이다. 3명의 동방 박사 출현과 관련해 KJV성경(King James Version)과 RSV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경배'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마태복음 2:2에 동방박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132] 하니" 그러나 1970년 가톨릭에서 출판된 NAB성경(New American Bible) 구절은 다음과 같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떠오르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러 왔노라** 하니"

RSV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 요한복음 9:37-38을 보자.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133]그러나 NAB성경(New American Bible) 번역 학자들은 다음 주석을 추가했다. "9:38은 중요한 MSS(사본)에 생략된 구절로 세례식을 위해 추가된 듯하다."

위 구절은 복음서를 담고 있는 중요한 고대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세례식을 위해 교회 서기들이 차후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성경과 성경 원어 분야의 유명한 권위자 조지 M. 람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경배를 뜻하는 아람어 사가드의 또 다른 의미는 '머리를 숙이다 혹은 무릎 꿇고 앉다'를 뜻한다. 동양인의 인사법은 일반적으로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다.[134] **절하는 지라**를 하나님을 숭배하는 듯 예수를 숭배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러한 행위는 유대인의 눈에 첫 번째 계명을 깨뜨리는 신성 모독으로 비춰졌을 것이며 그로 인해 투석 형벌에 처

131) 빅 베스트 성경. 요한복음 17:11참조
132) 마태복음 2:8참조
133) 마태복음 28:9의 구절 참조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
134) 사무엘상 25:23을 예로 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앞에 단지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무릎 꿇어 앉았을 뿐이다."[135)]

마지막 성서인 꾸란은 예수숭배 문제에 대해 명료한 답을 제시한다. 심판의 날 하나님과 예수는 다음 대화를 주고 받는다. 꾸란 마이다장 116-117에 알라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쳐 놓고 너 예수와 너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말하였느뇨 라고 물으시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할 권리도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였다면 당신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 저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당신 뿐입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 외에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이요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습니다[136)] 꾸란 5:116-117

6.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문구는 바로 요한복음 1:1과 1:14 구절이 아닌가 한다.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37)]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며 요한복음의 저자 역시 이 구절을 예수의 말씀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기독교 학자들마저도 의심하는 네 번째 복음서(요한복음)의 진위를 고려한다면 이 구절은 예수 신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될 수 없다. The Five Gospels(5대 복음서)를 집필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해 채색된 양쪽 그림 모두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네 번째 복음서에 예수의 말씀이라고 주장되는 구절들은 대부분 복음 전도사가 지

---

135) Gospel Light (1936 ed), p.353. Jesus, p.21
136)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37) 빅 베스트 성경

어낸 것으로 요한 기독교 공동체의 발달된 언어를 보여준다."[138]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서와 매우 상이하여 그 진위가 의심된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공관복음서	요한복음
예수의 선지자직은 공개적으로 1년간 지속된다	예수의 선지자직은 공개적으로 3년간 지속된다
예수의 재치있는 짤막한 경구와 우화로 말한다.	예수는 철학전 긴 대화체로 말한다.
예수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	예수는 자기의 임무와 인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숙고한다.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은 그의 초기 임무 중 일어난 마지막 사건이다.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은 그의 임무 중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다.
예수는 가난하고 박해받은 사람들을 대변한다.	예수는 가난하고 박해받은 사람들에 대해 거의 말을 하지 않거나 침묵을 지킨다.
예수는 귀신을 물리친다.	예수는 귀신을 물리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예수는 니산 15일에 십자가형을 당한다.	예수는 유월절인 니산 14일에 십자가형을 당한다.

네 번째 복음서(요한복음)의 익명의 저자가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그리스어는 '로고스(logos)'[139]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리스 철학 이교도 개념인 로고스와 예수[illegible]를 동일시했다. 로고스란 우주 안에 내재된 신의 이성으로써 명령을 내리고 형상과 의미를 부여한다.[140]

그리스 사상 로고스 개념은 기원전 6세기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인간 내부 이성의 힘과 비슷한 개념인 로고스가 우주적 현상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스토아학파[141]는 모든 실체

138) The Five Gospels, p.10
139) 복수형은 Logoi며 이성 혹은 계획을 의미하기도 한다.
140) 인도, 이집트, 페르시아 철학과 신학 체계에서도 로고스 개념이 발견된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7, p.440
141) 기원전 3, 4세기 경 사상가 제노가 스토아 학파의 시조다.

를 투과하는 능동적, 이성적, 영적 원칙으로써 로고스를 정의했다.[142]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유대 출신 철학자 주데우스 필로(기원전15년-서기45년)는 로고스를 하나님과 우주 사이의 중개자이자 대리인인 동시에 피조물의 대리인으로 정의했다. 이 대리인을 통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143] 필로의 저서는 교회에 소중히 보관되어 복잡한 기독교 철학 신학에 영감을 주었다. 필로는 로고스(말씀)에 관한 플라톤식 사상과 결별하고 로고스를 '하나님이 처음 낳으신 아들'이라 정의했다.[144]

기독교 신앙을 헬레니즘 세계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 시도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로고스와 예수를 동일시했으며 이 사상은 초기 교회에서 점차 발전되었다. 청중들은 기독교가 이교도 철학 중 가장 우월하거나 혹은 이교도 철학을 계승한 것 중 가장 뛰어난 철학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초기 기독교 목사들은 신학 논증법을 이용해 태초에 존재한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다.[145]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146]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한정사가 붙어 표현된 호티오스(hotheos)다. 번역하면 하나님(The God)이다. 두 번째 구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147]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부정사 형식인 톤티오스(tontheos)다. 번역하면 신(a god)이다. 따라서 그리스어 사본에서 번역한 요한복음 1:1은 다음과 같은 정확한 표현으로 재번역 되어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God)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신(a god)이시니라." '신(a god)'의 문자적 의미는 한 분이 아닌 두 분 이상의 신이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성경 언어에서 '신'이란 힘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예를 들어 고리도후서 4:4에 바울은 사탄을 '신'이라 부른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148] 출애굽기 7:1에 모세[illegible]역시 '신'이라 불린다. "여호와께서

---

142)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를 섭리, 자연, 신, 우주의 영혼이라고 불렀다.
143)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대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을 종교적 용어로 해석한 중세 플라톤 학파와필로는 로고스가 현세와 초월적 신의 이성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7, p.440
144)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9, p.386
145)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7, p.440
146) 요한복음 1:1
147) 요한복음 1:2
148) 빅 베스트 성경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찌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149]

고대 사상

예수와 그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바울교회와 예루살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났다. 해가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자 바울 기독교회는 사실상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냄으로써 완벽한 돌파구를 찾아냈다. 반면 예루살렘의 나사렛 교도들은 유대교와 절연하지 않고 스스로 토라를 충실하게 믿고 실천하는 유대인이었으며 또한 예수를 인간 메시아라 믿고 있었다.[150]

서기 70년 로마는 유대인 폭동을 진압하면서 사원을 파괴했다.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서로 흩어져 예수 운동의 중심이자 본산 교회로써 가졌던 영향력과 권력을 잃게 되었다.[151] 서기 66년까지 예루살렘의 강한 대립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고분 분투했던 바울 교회 운동은 드디어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야고보가 이끌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나사렛교로 알려져 있었으나 후에 경멸조의 에비오니트(히브리어는 에비오니엄, 가난한 자들을 뜻함)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부 나사렛교인들은 이 호칭을 "축복받은 자는 가난한 자라"는 예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긍지로써 받아들였다. 그리스-로마 교회의 지위가 상승할수록 바울 교리를 부정하는 나사렛교인들은 이단자로 취급되어 경멸 받았다.[152]

고대 교회 사학자 이레네우스(서기 185년)에 의하면 에비오니트들은 유일신 창조주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라 가르쳤으며 마태복음만을 사용하고 바울을 유대 율법의 배교자로써 배척했다.[153]

---

149) 빅 베스트 성경
150) The Myth-maker, p.172
151) 로마는 예루살렘을 두 번 파괴하고 엘리아 캐피톨리나라는 이름의 이교도시를 건설했다. 7년 후 교회 하나가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졌다. 이 새 교회는 야고보가 이끌었던 초기 예루살렘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 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며 유세비우스는 새 교회가 바울 교회 신조를 따랐다고 증언한다.
 -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Ⅲ. v.2-3, The Myth-maker, p.174
152) The Myth-maker, p.175
153)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4, p.344

에비오니트들은 4세기까지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국경과 시리아에 정착했고 그 후 소아시아, 이집트, 로마에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다.[154]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걸쳐 발달된 비유대인 기독교 운동은 에비오니트들의 '엄격한' 유일신주의 관점을 표방했다. 그리스도는 기적적으로 출생한 한 명의 인간으로 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주장되었다. 2세기 말 테오도투스는 로마에 이 사상을 가르쳤다. 교황 빅터는 테오도투스를 파문했다. 그 후 아르테몬이 같은 사상을 가르쳤으나 그 역시 교황 제피리누스에 의해 파문당했다. 서력 기원 260년 시리아 안티오크 주교 사모사타 바울[155]은 예수가 한 명의 인간이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분의 말씀(로고스)을 전하셨다고 공개적으로 선교했으며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지지했다.

263년에서 268년 사이 사모사타 바울 교리에 맞서기 위한 교회회의가 최소 세 차례 이상 안티오크에서 열렸다. 제 3회 교회회의는 사모사타 바울교리를 비난하고 그를 면직시켰다. 그러나 사모사타 바울은 팔미라 여왕 제노비아의 후원을 누렸는데 당시 안티오크는 여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우렐리언 황제가 제노비아를 패배시킨 272년까지 바울의 면직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156]

3세기 후반 4세기 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장로 아리우스 역시 그리스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가르쳤다. 서기 325년 5월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이단자로 선고받을 때까지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추종자를 낳았다.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신의 속성을 갖는다는 신앙 선언을 거부했다. 망명했던 아리우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딸 콘스탄티아와 소아시아의 동료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 복귀해 교회 내 입지를 세우는데 성공한다.[157] 아리우스에서 출발하여 아리우스 학설이라고 알려진 이 운동은 본래 예루살렘 나사렛교와 유대 출신 기독교 믿음의 연장선이다. 아리우스 학설은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바울정교에 가장 커다란 내적 위협이었다.

154)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4, p.344
155)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8, p.244
156)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9, p.208
157)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 p.556-557

서기 337년에서 350년까지 서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스는 정교회에 호의적이었으며 동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리우스파에 공감했다. 아리우스파의 영향력은 상당하여 서기 341년 안티오크에서 열린 교회회의를 통해 '예수가 신의 본성을 갖는다'는 조항이 삭제된 신앙 선언이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서기 350년 콘스탄티우스 2세가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자 니케아 공의회 세력(정교회)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서기 361년 콘스탄티우스 2세의 죽음으로 서로마 정교파는 다시 입지를 굳혔다. 한편 동로마에서는 아리우스파 황제 발렌스(서기 364-383년)의 통치 아래 절대 유일신주의가 지지되고 정교파 삼위일체주의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었다. 시어도시어스 황제 1세(서기 379-395년)가 정교파를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아리우스파는 마침내 몰락하게 된다. 그러나 아리우스파의 유일신주의 믿음은 7세기 말까지 일부 게르만 민족 사이에 잔재했다.[158)]

현대 사상

현재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고 믿는다. 1977년 영국 국교회 주요 신학자와 신약 성경학자 7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The Myth of God Incarnate(화신의 신화)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다. 그 책은 영국 국교회 대종교 회의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편집자 존 힉은 서문에 이렇게 기술한다. "본서의 저자들은 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다른 방식의 신학 발전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그러한 필요성은 기독교 기원에 대한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요구된 것으로 신의 목적 안에 특별한 역할을 맡은 예수가 (사도행전 2:21에 제시되듯) 하나님에 의해 인증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수반한다. 후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화신이며 삼위일체설의 두 번째 존재로서 인간의 생을 살았다는 개념이 생겨났으나 이것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이 하나의 신화 혹은 시적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본다."[159)]

158)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9, p.208
159) The Myth of God Incarnate, p.9

신약성경 학자들은 역사상의 예수가 후기 기독교 사상에서 부여된 신성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스스로 자신을 신이나 신의 아들 혹은 (육체를 가진) 화신이라 생각하지 않았다.[160]

신약성경 학자 고(故) 마이클 람세이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예수는 스스로 신성을 주장하지 않았다."[161] 그와 동시대 신약성경 학자 C. F. D. 모울레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 스스로 자신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수록한 네 번째 복음서에 의존하는 그리스도론은 사실상 불안정하다."[162]

성육신 교리의 기원을 전공하고 정통파 그리스도론을 지지하는 제임스 던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예수가 신성을 의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질적 증거는 전혀 없다."[163] 전통적 니케아-칼세도니아 그리스도론을 지지하는 브라이언 헤블스와이트 역시 이렇게 시인한다.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그의 신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164] 헤블스와이트와 제임스 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 학자들은 현재까지 예수의 신성을 믿고 있지만, **예수가 신의 화신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으며** 부활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영국 국교회 주교들 중 예수의 신성을 의심한 유명한 사람은 더럼주 주교 데이비드 젠킨스 교수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공언한다.[165]

수년전 데일리 뉴스(The Daily News)에 수록된 다음 기사는 예수의 신성에 대해 회의를 보이는 성직자 실태를 보여준다.

160) The Metaphor of God Incarnate, p.27-28
161) Jesus and the Living Past, p.39
162) The Origin of Christology, p.136
163) Christology in the Making, p.60
164) The Incarnation, p.74
165) The Economist, April 1, 1989, vol.311, #7596, p.19

영국국교회 주교들에 대한 충격적 조사

런던 : 오늘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교회 주교들의 과반수 이상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신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국교회 주교 39명 중 31명이 참가한 이 투표는 그리스도의 기적과 동정녀로부터 탄생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묘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교들이 다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 11명의 주교들만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신이자 인간인 존재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19명의 주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최고 대리인 정도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1명은 뚜렷한 의견 제시를 거부했다.

투표는 런던 위켄드 텔레비전 주간 종교 프로그램 CREDO(신조)에 의해 실시되었다.

1984년 6월 25일 데일리 뉴스

제 3 장

메시지

두 번째 논점 **예수의 메시지**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인 듯하다. 예수가 화신이 아니라 신의 선지자라면 그가 신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가 선지자적 임무의 핵심이다.

순종

예수의 메시지의 기본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곳적부터 인간을 위한 종교의 기초로 정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꾸란 이므란장 19절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뿐이며[166] 꾸란 3:19

아랍어로 **이슬람**이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7:22에 예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167] 예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강조한다. 요한복음 5:30에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168]

166)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67) 빅 베스트 성경
168) 빅 베스트 성경

계명

하나님의 의지는 선지자가 추종자에게 가르친 계명 안에 담겨 있다. 따라서 숭배의 기초는 바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 꾸란 마이다장 44절은 계명의 준수를 강조한다.

> **내가 빛과 복음이 담겨진 구약을 내리셨노라 그리하여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심판하였으며 율법학자들과 유대학자들도 하나님의 성서에 의존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에 대한 증인들이었으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할 것이며 하찮은 대가로 나의 말씀을 매도하지 말라고 했거늘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심판하지 못한 자들은 불신자들이라**[169] 꾸란 5:44

마태복음 19:16-17에 예수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 천국의 열쇠라고 말했다.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170] 마태복음 5:19에 전하는 바로 예수는 계명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171]

하나님의 법은 인류의 모든 삶의 길잡이다. 인간을 위해 옳고 그른 것을 정의하고 만사를 관장하는 완벽한 체계를 제시한다. 창조주 홀로 피조물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심신과 사회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와 물질을 금하거나 준수하도록 명한다. 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분을 숭배해야 한다.[172]

예수의 메시지가 전한 종교의 의미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는 선지자 모세에게 계시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모세 이후 선지자들처

---

169)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70) 빅 베스트 성경
171) 빅 베스트 성경
172) 창조의 목적 p.35 -아담북센타/ The Purpose of Creation, p.42-43

럼 예수 역시 율법을 준수했다. 꾸란 마이다장 46절에 예수는 토라의 율법을 확증했다고 계시되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의 내용을 충족시키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였노라 또한 하나님은 신약을 계시하여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의 내용을 확증하면서 그 안에 빛과 복음을 주었으니 이것은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이라[173)]

꾸란 5:46

마태복음 5:17-18에 예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174)] 반면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한 바울은 조직적으로 율법을 폐기시켰다. 로마서 7:6에 바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175)]

유니테리언교

예수는 이전의 선지자들처럼 한 명의 선지자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길로 사람들을 초대했다. 꾸란 나흘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각 민족에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으니[176)] **꾸란 16:36**

누가복음 4:8에 사탄은 예수에게 현세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약속하며 사탄을 숭배하라 요구하나 예수는 이렇게 답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177)]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홀로 숭배 받으셔야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

173)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74) 빅 베스트 성경
175) 빅 베스트 성경
176)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77) 빅 베스트 성경

외의 대상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행위라는 점이 예수의 메시지의 정수다. 그는 이 메시지로 사람들을 초대했으며 실제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숭배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마가복음 14:32는 다음과 같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178] 누가복음 5:16이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179]

예수는 유일한 속성을 지니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로 사람들을 초대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속성을 갖지 않으시며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 없다. 마태복음 19:16-17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는 **알라**만이 선의 속성을 소유하신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신이라 믿으며 예수에게 기도한다. 기독교 철학자들은 인간 예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 안에 내재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주장한다. 우상 숭배자의 설명도 이와 비슷하다. 우상을 숭배하는 철학자에게 인간의 손으로 빚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단연코 절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 답한다. 우상은 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초점일 뿐이며 우상의 물질 자체가 아닌 그 안에 내재된 신을 숭배한다고 설명한다. 우상 숭배자와 예수를 숭배하는 기독교인 사이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일탈의 근원은 하나님이 그 분의 피조물 안에 내재한다는 거짓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숭배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강조한 예수의 메시지는 그가 떠난 후 왜곡되었다. 바울을 선두로 하는 후기 추종자들은 순수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복잡한 삼위일체 철학으로 바꾸어 예수에 대한 숭배를 정당화시키고 종국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180]와 천사[181]와 성인마저도 숭배

178) 빅 베스트 성경
179) 빅 베스트 성경
180) 성 마리아로 불린다. 마리아는 로마 교황 시대 이후 교회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 3세기에서 4세기 사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의 티오토코스라는 호칭이 붙여졌다. 종교적 축일과 기도와 로자리오 묵주 형식으로 행해지는 마리아에 대한 경배는 로마 가톨릭교와 정교회 신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7, p.897-898, & vol 16, p.278-279

대상으로 삼았다. 가톨릭교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명의 성인들에게 도움을 간구한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테베의 성 안토니우스에게 기도한다.[182]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을 때 혹은 불치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불가능의 수호성인 성 유다 타테우스에게 간청한다.[183] 여행길에 나서면 여행자의 수호성인 성 크리스토퍼에게 보호를 구한다. 1969년 교황령에 따라 성 크리스토퍼는 성인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184] 여전히 그에게 기도하는 가톨릭 신자의 수는 상당하다.

성인 숭배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부인하고 타락시키는 헛된 행위다. 살아있는 성인과 이미 죽은 성인 모두 인간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숭배는 어떤 형태로도 피조물과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 알라는 꾸란 아으라프장 19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들도 너희와 같은 종들이라 너희가 그것들을 신으로 확신한다면 그것들이 응답하는지 기도하여 보라**[185] 꾸란 7:194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전에 오셨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이며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시지다. 성인에게 기도하는 무슬림은 이미 이슬람의 영역을 벗어났다. 이슬람은 단순히 마음속에 담고 있는 믿음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마지막 사도다"라는 믿음을 말로써 표현해야 한다. 신앙을 선언한 사람은 이슬람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신앙 선언을 부정하며 이슬람 영역 밖으로 추방시키는 여러 행위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 외의 대상에 기도하는 행위다.

---

181)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와 라파엘 천사는 성인으로 여겨진다. 미가엘 축일(성공회에서는 성 미가엘과 모든 성인을 위한 축일로 부름)은 천사들을 위한 축제로 서방 교회는 9월 29일에, 동방 정교회는 11월 8일에 기념한다. 성 미가엘에 대한 숭배는 서력기원 4세기 동방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천국 군대 수장으로서의 성 미가엘의 전통적 지위는 천사 모두를 숭배 반열에 올렸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8, p.95.
성 미가엘은 군인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182) The World Book Encyclopaedia, vol.1. p.509

183) The World Book Encyclopaedia, vol.11. p.146

184) The World Book Encyclopaedia, vol.3, p.417

185)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마호메트교도'가 아닌 무슬림

예수와 이전 선지자들이 가져왔던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숭배의 종교로써 아랍어로는 **이슬람**이라 한다. 진실한 추종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불리며 아랍어로는 **무슬림**이라 한다.

이슬람에서 예배는 숭배의 한 가지 형태다. 선지자 무함마드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기원은 하나의 숭배 행위입니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387, #1474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부처의 추종자를 불교인이라 부르는 것처럼 무슬림을 마호메트교도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불교인은 부처를 숭배한다. 마호메트교도라는 용어는 무함마드ﷺ를 숭배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꾸란을 통해 진실로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부르셨다. 아랍어로 무슬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분은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너희를 무슬림이라 부르셨으며[186]

꾸란 22:78

결과적으로 예수ﷺ메시지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피조물을 통한 형식으로 숭배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채색되거나 새겨지거나 그려질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 분이시다.

성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자의 관습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토라 출애굽기 20:4의 형상 금지 구절을 강조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187]

186)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87) 빅 베스트 성경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성상으로 불리는 종교적 형상[188]의 사용을 엄격히 반대했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변하자 결국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그리스-로마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다.

성상 금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는 타락을 막기 위함이다.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닮은 모습이다. 인간의 이성은 목격한 것만을 그려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상 숭배 전통을 따르는 기독교인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숭배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하나님에 대한 숭배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참 성서에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해 계시하셨다. 알라는 꾸란에 자비로우신 분이라 묘사된다. 따라서 숭배자는 하나님의 여러 자비에 대해 숙고하고 감사드려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알라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묘사된다. 따라서 숭배자는 죄악을 저질렀다 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여 그 분께 귀환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에 감사드리고 타인에게도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예언

선지자 예수가 남긴 메시지의 일부에 예수 이후에 올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수는 하나

188) 8-9세기 비잔틴 제국 내 종교적 성상을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성상 파괴 논쟁이 벌어졌다. 성상 파괴주의자는 출애굽기 20:4의 형상 숭배 금지 구절과 우상 숭배로 빠질 가능성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성상 숭배를 반대했다. 반면 성상 숭배 찬성자는 창조물질의 위엄성과 형상의 상징적 본질을 주장했다.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인 초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 사용은 꾸준히 인기 있었고 특히 동부 로마제국에서 그러했다. 서기 6세기말에서 7세기 사이 성상은 공식 숭배 대상으로 지정되어 미신적 믿음을 생기 있게 표현했다.
성상 숭배 반대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726년 비잔틴 황제 레오 3세는 성상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을 표방했으며 730년 성상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성상 숭배자에 대한 박해가 뒤이었으며 레오를 계승한 콘스탄티누스 5세(서기 741-775년) 때 박해는 정점을 이루었다.
787년 이레네 여왕은 니케아에 제 7회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했다. 여기서 성상파괴주의는 비난받았으며 성상 사용이 재 허락 되었다. 814년 레오 5세 즉위 후 성상파괴주의자는 다시 권력을 잡게 되어 815년 공의회를 통해 성상 사용이 재 금지 되었다. 842년 황제 티오필우스의 사망과 함께 성상 파괴주의는 막을 내렸다. 843년 홀로 남은 왕비는 마침내 성상 숭배를 복원시켰고 동방 정교회는 정교회 축일로써 이를 기념한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6, p.237

님의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를 예언했다. 꾸란 사프장 6절에 하나님은 무함마드에 관한 예수의 예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선지자라 나 앞에 온 구약과 나 이후에 올 아흐맏[189] 이란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190]**
> **꾸란 61:6**

복음서의 여러 구절이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해 예언한다. 요한복음 14:16에 예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191]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192]

일반 기독교인은 요한복음 14:16에 언급된 보혜사를 성령으로 해석한다.[193]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누군가를 의미한다.[194] 특히 요한복음 16:7에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한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195]보혜사의 의미는 성령으로 해석될 수 없다. 복음서에 의하면 성령이란 예수의 탄생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96]성령은 예수 당대에도 존재했었다.[197] 위 구절의 보혜사는 아직 오시지 않은 존재를 의미한다.

---

189) 아흐맏은 무함마드처럼 '칭찬, 찬미' 라는 뜻의 아랍어 '함드' 에 어원을 둔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다른 이름은 아흐맏이다.

190)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191) 그리스어 파라클리트(paraclete)가 KJV 성경(King James Version)에 '보혜사'로 번역되었고 다른 성경에는 '옹호자', '도와주는 자' 등으로 번역되었다. 파라클리토스(parakletos)는 타인의 안녕을 위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조언해주거나 원인을 변호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 Beacon Bible Commentary, vol.7, p.168

192) 빅 베스트 성경

193) 요한복음 14:26은 다음과 같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요한일서 4:1에서 '영'이라는 용어는 선지자를 뜻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빅 베스트 성경

194) 또 다른(Another)이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로써 하나 이상' 뜻하거나 '다른 종류로써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신약성경 그리스어 본문에는 알론(allon)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알론(allon)은 알로스(allos)의 남성 형태로 그 의미는 '같은 종류로써 또 하나의 것'을 뜻한다. 그리스어로 '다른 종류로써 또 하나의 것' 이라는 단어는 헤테로스(heteros)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16에는 헤테로스(heteros)가 아닌 알론(allon) 으로 표현되어 있다.
– Jesus, A Prophet of Islam, p.15–16

195) 빅 베스트 성경

예수의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는 그 보혜사 이후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필요치 않음을 뜻한다.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그 분의 메시지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보존될 것이다.[198] 예수는 무함마드에 대한 토라의 예언을 강조한다. 신명기 18:18-19는 다음과 같다. "18 내가 그들의 형제[199]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200]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201]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202] 이사야 42장에 주의 종에 관한 예언이 있다. 유대인 선지자들의 임무가 이스라엘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그 선지자의 임무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 언급된다.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4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11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203] 하나님의 특별한 종은 게달 사람[204] 즉 아랍 민족 출신임을 알 수 있다.[205]

196) 누가복음 1:15에 세례 요한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 누가복음 1:15. 엘리사벳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 누가복음 1: 41. 사가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1:67

197) 누가복음 2:25-26에 성령은 시므온 위에 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 빅 베스트 성경. 누가복음 3:22에 성령은 예수
위에 한 마리의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온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 빅 베스트 성경

198) Jesus, A Prophet of Islam, p.13

199) 유대인의 형제를 뜻한다. 유대인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며 유대인의 형제는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민족을 뜻한다.

200) 꾸란의 문자적 의미는 '낭독'이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셨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교훈과 설명은 하디쓰라 불린다

201) 꾸란의 114장 중 제 9장을 제외한 모든 장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기도문으로 시작한다.

202) 빅 베스트 성경

203) 빅 베스트 성경

204)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히브리어로 아라바,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을 뜻한다. - Dictionary of the Bible, p.47.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 중 가장 두드러지게 언급되는 이름은 게달이다.
일반적으로 게달은 아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예레미야 2:10, 에스겔 27:21,이사야 60:7, 아가 1:5)

205) Jesus A Prophet of Islam, p.11

제 4 장

방식

선지자 예수ﷺ의 메시지가 갖는 또 다른 측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방식을 따르도록 초대한 것이다. 선지자는 계명을 전하고 이전 선지자들이 전한 계명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분을 숭배하는 길로 사람들을 초대했다. 또한 추종자에게 계명에 따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올바른 길로써 선지자의 방식을 따르도록 초대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요한복음 14:6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206] 예수ﷺ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의 신성에 대한 증거로써 인용하나 예수ﷺ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숭배하라 초대하지 않았다. 이 구절이 예수ﷺ의 실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 정의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신을 숭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가 가르쳐준 숭배 방식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꾸란 이므란장 31절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선지자 무함마드ﷺ를 따르라 계시되었다.

>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207] **꾸란 3:31**

선지자의 방식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선지자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며 선지자의 목표는 인류에게 알라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선지자가 없었다면 인류는 알라를 숭배하는 방식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식을 추종자에게 가르쳤다. 역으로 표현하자면 종교에 선지자가 전한 방식 외 추가된 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다.

---

206) 빅 베스트 성경
207)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선지자가 떠난 후 생겨난 종교의 변화는 사탄이 조장한 탈선이다. 이 점에 대해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에 어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535, #861
사히 무슬림 vol.3, p.931, #4266

예수의 가르침에 위배된 방식으로 알라를 숭배한다면 그 숭배 행위는 헛된 것이다.

예수의 방식

먼저 인식해야 할 요점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출신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인물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모세의 토라에 따라 생활했으며 추종자들에게 같은 삶의 방식을 가르쳤다. 마태복음 5:17-18에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한다.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208] 불행히도 예수가 떠난 지 5년 만에 다소의 사울(Saul of Tarsus)이라는 젊은 유대 율법박사가 나타나 스스로 환영을 통해 예수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방식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바울(사울의 로마식 이름)은 로마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설교를 펼쳐 나갔다. 그는 비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은 어떤 식으로든 토라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사도행전 13:39에 바울의 주장은 이렇게 기록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209] 전적으로 바울[210]의 노력으로 인해 교회는 비유대교 성격을 띠게 되었다. 바울은 신약성경 사도 서간의 상당부분을 집필했으며 교회는 그것을 공식 교리와 계시서로 받아들였다. 바울서신은 예수 복음서를 담

---

208) 빅 베스트 성경
209) 빅 베스트 성경
210) 예수가 떠난 지 34년 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 당했다

고 있지 않다.[211]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그리스-로마식) 철학으로 변형시켰다.

선지자 예수가 따랐거나 가르쳤던 가르침이었으나 후에 교회에 의해 폐기된 몇 가지 예시가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전하신 마지막 메시지인 이슬람 안에 되살아나 현재까지 무슬림 종교 생활의 일부로써 준수되고 있다.

할례

예수는 할례의식을 치렀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할례 전통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선지자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다. 창세기 17:9-13은 다음과 같다.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212]

누가복음 2:21은 다음과 같다. "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더라"[213] 따라서 할례의식은 예수방식 중 하나였다. 그러나 바울이 도입한 이론에 따라 대다수 현대 기독교인은 할례의식을 치루지 않는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주장했다. 로마서 2:29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214] 갈라디아서 5:2에 바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

211) Biblical Studie : From a Muslim Perspective, p.18
212) 빅 베스트 성경
213) 빅 베스트 성경
214) 빅 베스트 성경

무 유익이 없으리라"[215]이 구절은 바울의 거짓 해석이다. 예수는 마음에 할례한 적이 없으며 그것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 그는 할례의식을 치름으로써 신과의 **영원한 언약**을 지켰다. 그러므로 할례란 예수의 방식을 따른 중요한 의식 중 하나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선지자의 방식[216]을 이루는 다섯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와 치부와 겨드랑이를 제모 하는 것과 손 · 발톱을 자르고 콧수염을 짧게 자르는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7, p.515 #777

사히 무슬림 vol.1, p.159, #495

돼지고기

예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예수는 모세의 법을 따라 돼지고기를 금했다. 레위기 11:7-8은 다음과 같다. "7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 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8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217] 예수는 광인의 몸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에게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가라 허락했다. 귀신들이 돼지 떼의 몸속으로 들어가자 돼지들이 바다로 돌진해 모두 익사했다.[218] 현대 다수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를 섭취할 뿐만 돼지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느낀다. 그들은 돼지를 어린이 동요와 동화(아기 돼지 삼형제 등)의 주인공으로 삼는다.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돼지는 인기 만화 캐릭터이며 베이브라는 제목의 돼지에 관한 영화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라 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슬람법은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부터 현재까지 돼지고기와 그 제품을 엄격히 금한다. 꾸란 바까라장 17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15) 빅 베스트 성경
216) 아랍어 원문의 단어는 '피트라'다. 피트라의 문자적 의미는 '본성'이다.
217) 빅 베스트 성경. 신명기 14:8 참고
218) 마가복음 5:1-13 참고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자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넘지 않는 분량을 먹었을 경우는 죄가 아니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219] 꾸란 2:173

피

예수ﷺ는 피와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ﷺ에게 계시하신 바는 신명기 12:16에 기록된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220] 레위기 19:26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221] 꾸란은 현재까지 피의 섭취를 금한다. 꾸란 안암장 145절은 다음과 같다.

일러 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하지 아니했노라[222] 꾸란 6:145

하나님은 각 나라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특정 도살 의식을 정해주셨다. 도살된 동물의 피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꾸란 핫즈장 34절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식을 행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가축을 도살할 때 하나님을 염원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자 함이라[223] 꾸란 22:34

예수ﷺ와 초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염원하고 동물의 정맥을 절단하여 심장의 펌프질로 피를 밖으로 쏟아 내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도살 방식을 준수했다. 현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바른 도살 방식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219)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성 꾸란 5:3 참고
220) 빅 베스트 성경
221) 빅 베스트 성경
222)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223)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술

예수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민수기 6:1-4에 기록된 가르침에 따라 술을 마시지 않았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드리거든 3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찌니 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찌니"[224]

꾸란 마이다장 90절에 알라는 술을 금하신다.

>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225]
>
> 꾸란 5:90

나머지 세 복음서와 시종일관 모순을 보이는 요한복음에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226] 언급된다. 앞서 지적했듯 초기 교회는 요한복음을 이단으로써 금기했다.[227]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를 서로 비슷하게 다루고 있어 공관복음서라 불린다.[228] 결과적으로 신약성경 학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의 진위를 의심한다.

예배 전 세정

예배 전 예수는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 손발을 씻어냈다. 출애굽기 40:30-31에 모세와 아론 역시 같은 방식을 따랐다고 기록된다. "30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31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229]

꾸란 마이다장 6절에 예배를 위한 세정은 다음과 같이 계시되었다.

---

224) 빅 베스트 성경
225)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226) 요한복음 2:1-11
227) The Five Gospels, p.20
228)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5, p.379
229) 빅 베스트 성경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예배드리려 일어났을 때 너희 얼굴과 두 손을 팔꿈치까지 씻을 것이며 머리를 쓰다듬고 두 다리를 발목까지 닦을 것이라[230)] 꾸란 5:6

예배 중 부복

복음서에 예수는 예배 중 부복했다고 묘사된다. 예수와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여행한 일화가 마태복음 26:39에 묘사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231)]

오늘날 기독교인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그러한 자세는 예수가 따랐던 방식이 아니다. 예배 중 부복 방식은 예수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오신 선지자들의 예배 방식이다. 창세기 17:3에 선지자 아브라함 역시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기록된다. 민수기 16:22, 민수기 20:6에 모세와 아론이 예배 시 엎드렸다고 묘사된다. 여호수아 5:14와 7:6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기록된다. 열왕기상 18:42에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었다고 전한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의 방식이다. 예수를 추종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언급된 구원을 얻으려면 이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인싼장 25-26절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엎드려 절하는 신앙인을 위한 가르침이다.

아침저녁으로 주님을 염원하고 밤중에는 그분께 부복하여 경배하며 긴 밤을 통하여 그분을 영광 되게 하라[232)] 꾸란 76:25-26

---

230)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231) 빅 베스트 성경
232)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베일

예수[illegible]주변 여성들은 이전 선지자 주위 여성들의 관례에 따라 스스로 베일을 썼다. 느슨한 옷으로 신체를 완전히 가리고 머리카락을 가릴 스카프를 썼다. 창세기 24:64-65는 다음과 같다.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65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나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233] 바울은 고리도전서 11:5-6에 이렇게 기록한다.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6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찌니라"[234] 베일로 가리는 것이 당시 일반 풍습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로마-그리스 문화의 지배적 영향으로 옷차림은 짧고 팔, 다리와 가슴을 노출시키는 형태였다. 팔레스타인 내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종교적 여성들만이 몸을 가리는 정숙한 옷을 입었다.

에쉬바 대학 성경 문학 교수 랍비 메나쳄 M. 브라이어 박사에 따르면 유대 여성은 머리를 덮고 때로는 한쪽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옷차림으로 외출했다.[235] "유대 여성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정숙함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머리를 드러내고 외출한 여성에게 범칙금 400주짐이 부과되었다."[236]

저명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 성 테르툴리언(서기 220년)은 그의 유명한 논문 "처녀의 베일 위(On The Veiling of Virgins)"에 이렇게 기록한다. "젊은 여성들이여, 거리에서 베일을 쓰고 교회에서 베일을 써라. 낯선 이과 함께 있을 때 베일을 쓰고 형제와 함께 있을 때도 베일을 써라." 현재까지 가톨릭 교회법은 교회 안에서 여성은 머리를 덮어야 한다고 명시한다.[237]

---

233) 빅 베스트 성경
234) 빅 베스트 성경
235) The Jewish Woman in Rabbinic Literature, p.239
236) The Jewish Woman in Rabbinic Literature, p.139
237) Clara M. Henning, "Cannon Law and the Battle of the Sexes", in Religion and Sexism, p.272

꾸란 누르장 31절에 믿는 여성은 유혹하는 부분을 가리고 머리와 가슴에 베일을 써야 한다고 계시되었다.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드러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수건을 써서[238] 꾸란 24:31

꾸란 아흐잡장 59절에 베일을 써야 하는 이유가 계시되었다. 알라께서는 베일로 인해 사회 속 신앙인 여성은 구별되며 사회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말씀하셨다.

인사말

예수ﷺ는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인사했다. 요한복음의 익명의 저자는 20:21에 예수의 십자가형 후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239] 이런 인사법은 구약성경에 언급된 선지자들의 방식을 따른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5:6에 선지자 다윗ﷺ은 나발에게 열 소년을 보내며 이렇게 지시한다.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240] 꾸란은 집을 찾아온 사람 모두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라고 가르친다.[241]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사로부터 비슷한 평화의 인사를 받는다.[242] 안암장 54절에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주고 받으라 말씀하신다.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대에게 왔을 때 너희 위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243] 꾸란 6:54

무슬림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인사를 나눈다.

---

238)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239) 빅 베스트 성경
240) 빅 베스트 성경
241) 꾸란 24:27
242) 꾸란 7:46
243)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의무 회사

예수는 십일조라 알려진 의무 희사를 강조했다. 매년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신명기 14:22는 다음과 같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244]

꾸란 안암장 141절에 하나님은 수확 시기에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신다.

> **포도의 정원을 두시매 시렁이 많은 것과 없는 것을 두시고 종려나무를 두시매 그의 열매를 주시며 여러 가지로 주시고 올리브와 석류와 유사한 것과 서로 다른 것을 주신 분이 그 분이시라 그러므로 그 열매가 익을 때 먹고 수확하는 날 이슬람세를 바치라 그러나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은 낭비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245] 꾸란 6:141

아랍어로 '자카'라 부르는 의무회사는 현금과 귀금속과 농산품과 가축에 대해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매우 조직적 제도다. 또한 꾸란 9:60에 자카 수여 대상이 명백히 구별된다. 자카는 주로 다양한 부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포되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성직자에게 수여되지 않는다.

단식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40일 간 단식했다. 마태복음 4:2는 다음과 같다.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246] 단식은 이전 선지자들의 관습과 일치한다. 모세의 단식은 출애굽기 34:28에 기록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247]

꾸란 바까라장 183절에 신앙인은 규칙적 단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계시되었다.

---

244) 빅 베스트 성경
245)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246) 빅 베스트 성경
247) 빅 베스트 성경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인내심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248] 꾸란 2:183

단식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키워내기 위함이다. 하나님만이 실제로 누가 단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계신다. 따라서 단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음식과 음료를 삼간다. 규칙적 단식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켜 점차 의로운 성품을 갖게 한다.

신앙인은 이슬람력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달 동안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단식한다. 선지자 무함마드ﷺ의 말씀은 이렇게 전한다.

"[라마단 외] 최고의 단식은 하루걸러 단식했던 선지자 다윗의 단식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113-114, #200
사히 무슬림 vol.2, p.565, #2595

이자

선지자 예수ﷺ는 계명을 지키고 이자를 지불하거나 취하는 행위를 금하셨다. 토라가 이자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23:19에 기록된 바는 다음과 같다.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찌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249] 꾸란 2:278절에 이자는 엄격히 금지된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는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250] 꾸란 2:278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무슬림들은 무이자로 운영되는 이슬람 은행과 같은 대체 은행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248)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249) 그러나 뒤 이은 구절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비유대인으로부터 이자를 취하는 것을 허락한다.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3:20
250)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일부다처

선지자 예수ﷺ가 일부다처를 반대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일부다처를 반대했다면 이전에 오신 선지자들의 관습을 비난하는 처사가 되었을 것이다. 토라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일부다처 예시는 수없이 많다. 창세기 16:13에 의하면 선지자 아브라함ﷺ은 두 명의 부인을 두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거한 지 십년 후이었더라**"[251] 사무엘상 27:3에 따르면 선지자 다윗ﷺ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252] 열왕기상 11:3에 솔로몬ﷺ에 관한 다음 기록이 있다. "왕은 후비가 칠백 인이요 빈장이 삼백 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253] 역대하 11:21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다수의 아내를 두었다고 전한다. "르호보암이 아내 십팔과 첩 육십을 취하여 아들 이십팔과 딸 육십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하여"[254] 사실상 토라는 일부다처 환경 하에 생겨나는 유산 분배 문제에 관한 구체적 법까지 명시한다. 신명기 21:15-16은 다음과 같다. "15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16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255] 일부다처에 대한 유일한 제약은 아내의 자매를 금한 것이다. 레위기 18:18이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찌니라"[256] 탈무드는 최대 네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선지자 야곱ﷺ의 관습으로써 장려한다.[257]

---

251) 빅 베스트 성경
252) 빅 베스트 성경
253) 빅 베스트 성경
254) 빅 베스트 성경
255) 빅 베스트 성경
256) 빅 베스트 성경
257) Women in Judaism, p.148

유진 힐맨 목사는 이렇게 기술한다. "신약성경의 어디에도 일부일처만 지지하는 분명한 계명이 없으며 일부다처를 금하는 분명한 계명도 없다."[258]

이슬람은 최대 네 명까지 부인을 두는 것으로 일부다처를 제한하며 각 부인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기본 조건으로 명한다. 니싸아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네 번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 또는 너희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여성과 결혼하라[259] **꾸란 4:3**

---

258) Polygamy Reconsidered, p.140
259)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제 5 장

결론

전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의 메시지를 계시하신 분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의 메시지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아랍어로 이슬람이라 한다. 그 메시지는 지상 최초 인간에게 전해졌으며 시대를 거쳐 차례로 오신 선지자들을 통해 재 확증 되었다. 이슬람 메시지의 핵심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며 어떤 형태로든 피조물에 대한 숭배를 금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기적적으로 출생했으며 이전에 오신 선지자처럼 순종의 메시지(이슬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다. 예수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다. 단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뛰어난 선지자였다. 예수는 자신을 숭배하는 길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숭배하라 초대했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숭배했다. 또한 선지자 모세가 가르쳤던 토라의 계명을 확증했다. 예수는 토라에 따라 생활했으며 제자들에게 토라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따르도록 가르쳤다. 예수는 떠나기 전 마지막 선지자 아라비아의 무함마드를 예언했으며 그의 가르침을 준수하라 명했다.

예수가 떠나고 여러 세대가 지나자 예수의 가르침은 왜곡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승격되었다. 6세기 후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세상에 오시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재 확증되었으며 마지막 계시서인 꾸란에 영원히 보존되었다. 예수가 따랐던 모세의 법은 이슬람이라고 알려진 계시에 따른 삶의 방식 속에 그 순수하고 변형되지 않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어 실천된다.

선지자들에 관한 진실과 그 단일한 메시지와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안에서만 유일하게 보존된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정해주신 유일한 종교다. 오늘날 무슬림만이 예수와

그의 참 메시지를 실제로 따르고 있다. 현대 어느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의 삶의 방식이 예수의 삶의 방식과 훨씬 더 비슷하다. 예수 그리스도ﷺ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이슬람 신앙의 한 가지 조항이다. 알라는 꾸란의 여러 구절에 예수ﷺ에 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니싸아장 159절에 알라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서의 백성들은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심판의 날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노라[260) 꾸란 4:159

예수의 재림

기독교인이 고대하고 있는 예수ﷺ의 재림 역시 이슬람 신앙의 일부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가 재림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꾸란은 예수가 유대인에 의해 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승천시키셨다고 가르친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못하였고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을 할 따름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라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라[261)]

꾸란 4:157-158

선지자 무함마드ﷺ께서 예수ﷺ에 관해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나와 예수 사이의 선지자는 없으며 예수는 재림할 것입니다. 그가 재림하면 여러분은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체구가 건장하고 혈색이 불그스름한 사람으로 두 벌로 나누어진 옷을 입고 내려올 것입니다. 물기가 없어도 그의 머리는 젖어 보일 것입니다. 그는 이슬람을 확증하기 위해 싸울 것이며 십자가를 부수고 돼지를 죽이며 지즈야[262)]를 폐지할 것입니다. 그 때 알라는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260)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261) 꾸란 의미 해석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종교를 없애실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살해될 것입니다. 예수는 40년 동안 지상에 머물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면 무슬림은 그를 위한 장례 예배를 치를것입니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3, p.1203, #4310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3, p.815-816, #3635

예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 머지않음을 알리는 예증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62) 무슬림 정권 아래 거주하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으로부터 자카(의무 희사) 대신 걷는 세금과 국방의 의무

인용 문헌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H.1425

창조의 목적, 아담 출판사, 2007

빅 베스트 성경, 편찬대표 이종성 박사, 성서원

Arberry, Arthur J., The Koran Interpreted,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Barr, James, "Abba Isn' t Daddy" in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vol.39, 1988

"Abba, Father", in Theology, vol.91, #741, 1988

Brayer, Menachem M, The Jewish Woman in Rabbinic Literature: A Psychosocial Perspective, Hoboken, N.J: Ktav Publishing House, 1986

Burton, John, An Introduction to the Hadith, UK: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4

The Collection of the Qur'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Cragg, Kenneth, The Mind of the Qur'a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3

Deedat, Ahmed, Christ in Islam, Durban, South Africa: The Islamic Propagation
Center, n.d.

Dunn, James, Christology in the Making, London: SCM Press, an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0

Friedman, Richard, Who Wrote the Bible? U. S. A.: Summit Books, 1987

Funk, Robert W. Roy W. Hoover and The Jesus Seminar, The Five Gospels, New York: Polebridge Press, Macmillan Publishing Co., 1993

Graham, William, Beyond the Written Word,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Hamidullah, Mohammed, Muhammad Rasullullah, Lahore, Pakistan: Idara-e-islamiat, n.d.

Hasan, Ahmed, Sunan Abu Dawud (English Trans), Lahore: Sh. Muhammad Ashraf Publishers, 1st ed., 1987

Hastings, J.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revised ed., 1963

Hebblethwaite, Brian, The Incarnatio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Hick John, ed., The Myth of God Incarnate, London: SCM Press Ltd, 1977

The Metaphor of God Incarnate, London: SCM Press Ltd, 1933

Hillman, Eugene, Polygamy Reconsidered: African Plural Marriage and the Christian Churches, New York: Orbis Books, 1975

Hornby, A. S. The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4th ed., 1989

Khan, Muhammad Muhsin, Sahih Al-Bukhari (Arabic-English), Lahore: Kazi
Publications, 6th ed., 1986

Gibb, H. A. R and J. H. Kramers, Shorter Encyclopaedia of Islam, Itha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53c

Maccoby, Hyam, The Myth−maker, Paul and the Invention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 Row, 1987

Mayfield, Joseph. H., Beacon Bible Commentar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65

Moule, C. F. D., The Origin of Christology,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Mufassir, Sulayman Shahid, Biblical Studies from a Muslim Perspective, Washington: The Islamic Center, 1973

Jesus, A Prophet of Islam, Indianapolis: American Trust Publications, 1980

Nicholson, Reynold A., Literary History of the Arab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hilips, Abu Ameenah Bilal, The Purpose of Creation, Sharjah, U. A. E.: Dar Al Fatah, 1995

Ramsey, Michael, Jesus and the Living Past,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Ruether, Rosemary R., ed., Religion and Sexism: Images of Woman in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74

Spray, Lisa, Jesus, Tucson, AZ: Renaissance Production, 1987

Siddiqi, Abdul Hamid, Sahih Muslim, (English Trans.) Lahore: Sh. Muhammad Ashraf Publishers, 1987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5th Edition, 1991

The World Book Encyclopaedia, Chicago: World Book, Inc., 1987

이슬람에 대한 한글 홈페이지 주소

www.quran.or.kr
www.islaminkorea.or.kr

이슬람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 주소

www.kalamullah.com
www.islaam.com
www.islambasics.com
www.tanzil.info
www.watchislam.com
www.islamqa.com
www.rasoulallah.net
www.sultan.org
www.islamreligion.com
www.searchtruth.com
www.mp3quran.net
www.islamhouse.com
www.islam-guide.com

The True Messa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지

저 자 :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박사
Dr. Abu Ameenah Bilal Philips

옮긴이 : 아미나 곽은미

발행처 : 아담 출판사 & 이슬람 북센타

초판일 : 서기 2011년 1월 25일
히즈리 21, safar, 1432

주 소 : 서울 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37-46

전 화 : (02) 794-0968

이메일 : islaminkorea@yahoo.com

홈페이지 : www.islaminkorea.or.kr

값 8000원



아담출판사
이슬람북센타

9 788995 694657
03280
ISBN 978-89-956946-5-7